

# 영화와 미술 사이- 일본과 한국의 영상작품을 중심으로

## 2019년 11월 17일 (일)

### 13:00-16:00

메이지대학 나카노캠퍼스 5층 홀

현대미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일본과 한국의 아티스트를 초빙한 상영/토론회. 20세기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기억을 둘러싼 두 상영 작품은, 본래 미술관에서 전시 (installation) 라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.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영화관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이동하는 관객을 향해, 두 사람의 미술 작가는 어떠한 방법론으로 공간과 시간을 연출 (installing time in space) 하는가. 경계를 넘나드는 영상 표현을 검증하고, 전시와 상영이라는 두 가지 감상 형식에 있어서의 관객성 (spectatorship) 을 분석한다.

상영 작품  
후지이 히카루 <2.8 독립 선언서 | 일본어로 낭독하기> (2019)  
남화연 <입진가와> (2017)  
\* 두 작품 모두 일본 국내 최초 공개, 쇼트 버전 상영

강사	후지이 히카루 미술작가, 영화감독 남화연 미술작가
발제자	야마시타 코요 이미지포럼 디렉터, 영화 프로그래머 오사카 코이치로 갤러리 아사쿠사 대표 타다 카오리 도쿄도사진미술관 에이스영상제 큐레이터
진행	마정연 특임강사
사용 언어	상영   후지이: 일본어, 영어+한국어 자막 남화연: 일본어+한국어, 영어 자막 토론   일본어, 한국어 순차 통역
대상 협력	메이지대학 국제일본학부생 (외부 공개) 메이지대학현대일본퍼포밍아츠연구